

위구르 민족문제와 테러리즘, 그리고 중국의 국가테러리즘

윤민우*

〈요 약〉

중국의 제국질서 구축에 대한 욕망은 오늘날 평화적 국제질서에 대한 주요한 위협요소이다. 중국의 오만하고 망상적인 목표가 지리적으로 근접한 우리국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우리국가의 안보와 국가이익에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오늘날 위구르 민족문제와 위구르 테러리즘의 문제 그리고 이에 맞서고 있는 폭압적인 중국의 국가테러리즘 간의 흥미로운 다이내믹은 그러한 문제에 대한 하나의 의미 있는 예측판단이 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이 논문은 위구르 민족독립 문제와 테러리즘, 그리고 중국의 국가테러리즘 간의 상호관계를 그려낼 것이다. 오늘날 테러리즘은 민족의 독립문제와 정치적 경제적 차별, 비국가 행위자로서의 테러세력과 이들이 주도하는 테러리즘, 그리고 이와 연동되어 움직이는 주요 국가들의 국제질서에서의 패권경쟁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다차원적 안보문제이다. 위구르 민족과 테러리즘을 둘러싼 복잡한 다이내믹은 이러한 다차원적 안보문제로서의 테러리즘의 속성을 잘 보여준다.

주제어 : 테러리즘, 위구르, 위구르 민족주의, 중국제국주의, 국가테러리즘, 이슬람 극단주의

* 가천대학교 경찰안보학과 부교수, 범죄학 박사, 국제정치학 박사수료

| 목 차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머리말 II. 위구르에 대한 배경설명 III. 중국의 국가테러리즘 IV. 위구르 테러리즘 V. 맺음말 |
|---|

I. 머리말

지난 달, 중국은 열병식 행사를 통해 군사굴기 즉, 군사력을 통해 제국질서의 중심으로의 복귀하겠다는 의도를 공식화했다. 아직은 미완성인 중국의 제국질서 구축에 대한 목표가 만약 미래의 어떤 시점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 이 질문은 중국에 이웃한 우리에게 매우 절박하고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중화제국 질서의 모습을 미리 그려보는데 위구르 민족문제는 하나의 의미 있는 샘플이 될지 모른다. 위구르 민족이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비극과 고난은 위구르 민족의 정체성과 생존의 문제, 독립에 대한 염원, 중국의 제국적 탐욕과 폭압적인 국가 테러리즘, 글로벌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 범 투르크 민족주의, 그리고 현실주의적 국제관계와 주요 국가들의 패권경쟁 등의 복합 요소들이 빚어낸 어떤 결과물이다. 따라서 위구르 민족과 테러리즘을 둘러싼 문제는 다차원 안보문제의 하나의 전형적인 사례가 된다(윤민우·김은영, 2012). 더불어 위구르 이슈는 우리에게 제국질서에 편입된 소수민족이 맞게 될 암울한 결과를 보여주는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

지난 8월 방콕에서 발생한 에라완 사원 폭발테러는 위구르인 또는 위구르 테러조직인 동 투르크 이슬람 운동(EIIM: Eastern Turkistan Islamic Movement)에 의한 것으로

로 태국 당국에 의해 발표되었다(정은지, 2015). 폭발 사건 직후 테러 배후에 태국 반정부 단체에 의한 소행이나 개인적 원한 등으로 추정되었으나 글쓴이는 폭발 사건 직후 위구르 테러세력을 의심했었다. 그 추정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격목표가 중국인들이었다는 사실이다. 위구르 테러리즘의 주요 타깃은 중국정부와 중국인이다. 또한 사용된 폭탄의 종류와 위력 그리고 폭탄테러를 위한 준비과정과 공격대상 설정, 그리고 시간대 등을 고려해 볼 때 불만을 가진 몇몇 개인의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며 조직적 작전과 지원, 기획 등을 필요로 한다. 즉 훈련받은 전문테러 세력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또한 폭탄테러사건 이후에 책임을 주장하는 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체로 IS나 알 카에다와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세력들은 사건 즉시 자신들의 업적임을 주장하는 선전전을 수행한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의 관찰에 따르면 위구르 테러조직들의 경우 테러사건 이후에 자신들의 행위임을 주장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경우들이 나타났다. 이는 아마도 중국 정부에 의한 위구르 인들에 대한 탄압과 학대에 대한 우려 때문이 아닐까 추정한다.

중국으로서는 위구르 문제는 밝히고 싶지 않는 하나의 치부이자 아킬레스건이다. 중국은 자신들의 제국질서의 중심으로의 등장에 대한 하나의 윤리적 정당성의 근거로 반제국주의를 강조한다. 또한, 미국과 서방 등이 구축한 제국주의 질서에 대한 하나의 저항세력의 중심으로 자신들의 윤리적 정당성을 설정한다. 지난 열병식의 주요테마가 반파시스트 동맹이었다는 사실은 이에 대한 증거이다. 반파시스트의 다른 이름은 반제국주의이며 이는 일본과 그리고 일본을 후원하는 미국에 대한 도전이라는 명제를 담고 있다. 때문에 반제국주의 세력으로서의 윤리적 정당성은 자신들의 제국질서 구축에서 핵심적인 사안이다. 반제국주의로서 중화질서는 서방을 자신들이 설정한 역내에서 몰아낸 아시아인에 의한 아시아 질서라는 명제로서의 중국 중심의 제국질서이다. 여기서 다른 민족은 중국화하거나 중국에 복속된 객체로서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는 아시아 여러 민족 간의 화해와 평화공존이라는 명제로 포장된다. 하지만 티벳과 위구르의 민족문제와 인권문제는 중국의 반제국주의 주장의 허구성과 비도덕성, 그리고 사기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 이 때문에 중국은 이러한 문제를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고 싶어 하며 덮어두고 싶어 한다.

이 논문은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위구르 문제를 드러낼 것이다. 위구르 문제는 거의 중국의 공식 미디어를 통해서 외부에 알려진다. 때문에 상당부분 왜곡된 정보가 전달된다. 이 논문은 중국정부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독립적인 출처인 미디어

보도와 정보보고 자료 등을 토대로 위구르 문제의 실체를 밝히려고 시도한다. 위구르 문제에 대한 이해는 테러리즘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것과 중국 국가테러리즘의 실체와 제국주의 욕망에 대해 알고 이와 연동된 우리나라의 안보문제의 핵심 사안을 이해하고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된다.

II. 위구르에 대한 배경설명

우리에게 생소한 위구르 인들은 이른바 중국의 신장-위구르 자치지역에 기반을 둔 민족이다. 이들은 우리 역사에 돌궐족으로 알려진 투르크 또는 터키계 민족이다. 터키 민족들은 위구르를 포함하여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러시아 연방에 속한 타타르스탄과 터키까지 유라시아 대륙 중심부에 넓게 퍼져있다. 이들은 우리 한민족과도 인류학, 언어학적으로 매우 동질적이며 고구려 시절부터 유연이라는 투르크 국가와 수당 등 대 중국왕조 견제를 위한 긴밀한 동맹관계를 형성하였다(서영교, 2007: 300-325). 예를 들면 중국왕조의 북동국경에 고구려가 접하고 있고 북서국경에 유연이 접하고 있었다. 때문에 어느 일방이 중국 왕조와 무력충돌이 있을 경우 다른 일방이 침공을 통해 제2전선을 형성함으로써 공통의 안보를 도모했다(서영교, 2007: 300-325). 더욱이 돌궐족 상당수가 고구려, 백제, 신라 등에 이주한 기록들을 고려할 때 민족적으로도 우리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위구르인들이 터키계라는 사실은 터키 내의 상당한 친 위구르 정서와 연결된다. 터키 내의 주요한 정치세력 가운데 하나인 투르크 민족주의세력은 위구르인과 위구르의 독립을 지지한다. 이들은 위구르 문제에 적극적인데 이들의 위구르 지지는 범 투르크 운동과 연결된다. 범 투르크 운동은 위구르 지역에서 터키 사이에 펼쳐진 유라시아 대륙 중앙의 투르크 민족영역을 포괄하는 하나의 투르크 세력권을 형성하자는 운동이다. 이런 맥락에서 위구르 문제는 자신들의 문제가 되며 때문에 위구르인들을 탄압하는 중국에 대한 반 중국 정서가 나타나게 된다. 이런 배경 하에 터키 내에서 중국인들에 대한 증오범죄나 공격 등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터키 내에 상당한 위구르 난민이나 이주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도 이러한 민족적 동질성과 유대, 그리고 민족주의 세력의 정치적 지지에 기반하고 있다. 현 에르도간 정부 하에서

투르크 민족주의 세력은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위구르 문제는 터키의 주요한 아젠더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Babayán, 2011; Girit, 2015).

문화적, 종교적으로 위구르 인들은 이슬람 종교와 문화를 유지해 왔다. 이들은 수니 무슬림이다. 때문에 이들은 중앙아시아와 중동지역의 다른 수니 무슬림들과 상당한 종교적, 문화적 공감대와 공동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반면 중국의 92퍼센트를 차지하는 주류민족인 한족과는 종교적, 문화적 공감대나 공동의 정체성을 공유하지 않는다. 오늘날 중국정부는 위구르 지역에서 민족 간 조화와 공영을 주장하며 위구르 인들을 한족으로 통합시키려고 시도한다. 이 과정에서 위구르인들의 문화와 종교는 조직적으로 탄압되고 말살된다. 이러한 중국의 민족탄압정책은 과거 일본의 조선민족말살정책을 연상시킨다. 외관상으로 위구르 지역에 많은 모스크들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이슬람 종교 활동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다. 학교에서의 종교행위, 근무 중에 머리에 스카프를 두르는 행위, 라마단 동안의 행사 등이 상당히 제약되거나 축소된다. 코란과 아라비아어에 대한 학습은 통제되며 위구르 언어는 점차로 이 지역 대부분의 학교에서 축출되고 있다. 이 밖에도 이른바 재교육을 통한 중국화 그리고 감시 카메라와 검열 등을 통한 통제 역시 위구르인들의 고유한 문화와 종교를 탄압하고 말살하기 위한 의도로 실행되고 있다(Poh, 2015; Rauhala, 2014).

지금은 위구르 테러리즘이 알카에다와 IS와 같은 글로벌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의 하나로 인식되어어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2001년 9.11테러를 기회로 활용하여 중국은 수 세기에 걸친 위구르 민족문제를 영구히 해결하기 위해 위구르 민족말살정책을 대테러 전쟁으로 포장하였다. 미국과 서방의 대 알카에다 전쟁을 지지해주는 대가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에 위구르 독립 세력을 포함시켰고 이들을 알카에다와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세력으로 몰아붙였다(Lufti, 2015).

사실상 위구르 민족의 독립문제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의 등장 훨씬 이전부터 존재해오던 문제이다. 역사적으로 1759년에 청 제국이 동 투르크스탄을 병합하고 신장(새로운 국경지대라는 의미이다)지역으로 지정한 이래 약 245년 동안 위구르인들은 독립투쟁을 지속해오고 있다. 1815년, 1825년, 1830년, 1847년, 그리고 1857년에 봉기가 있었으며 이는 1866년에서 1877년까지 군사지도자인 야쿵 백이 독립적인 이슬람 통치 질서를 건설하는 밑거름이 됐다. 이후 1877년에 다시 중국에 복속되었다가 1931년에서 1934년, 그리고 1944년에서 1949년 두 차례 동 투르크스탄 공화국이

로 독립했었다. 마지막으로 1949년에 중국 인민해방군에 의해 정복된 이후로 지금까지 신장-위구르 자치주의 소수민족으로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다(Lufti, 2015).

III. 중국의 국가테러리즘

국가테러리즘은 국가권력에 의한 공포정치 또는 공포에 의한 통치를 의미한다(White, 2003: 66-67). 과거의 스탈린 통치하의 소련이나 오늘날 북한의 김정은 정체가 국가테러리즘의 전형적인 사례들이다. 대량학살이나 탄압, 자의적인 국가권력의 행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임의적인 체포나 압수수색, 고문, 대중에 대한 협박 등을 통해 공포를 조장하고 이를 통해 대중을 통제한다. 원래 테러리즘의 어원은 국가테러리즘을 의미했다. 프랑스 혁명 이후 등장한 로베스피에리의 혁명정부의 통치방식을 묘사한 *Reign of Terror*에서 테러리즘이라는 단어가 유래되었다(White, 2003: 66-67). 이 혁명정부는 대량체포와 즉결처형과 같은 수단을 사용하여 공포에 의한 통치를 실행했다. 테러리즘이 국가테러리즘에서 혁명세력이나 민족독립세력, 분리주의자들 같은 비국가행위자들의 폭력수단에 의한 불법적 공격행위를 의미하게 된 것은 19세기 후반 러시아 무정부주의자들이 다이내마이트나 총기류를 사용하여 폭탄테러나 암살, 무장공격 등을 하게 되면서부터이다. 1차 대전을 불러일으킨 세르비아 청년에 의한 오스트리아 황태자 저격사건이 이러한 테러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후로 테러리즘은 일반적으로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정치적 폭력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그리고 국가에 의한 폭압적인 공포에 의한 통치방식은 국가테러리즘이라는 용어로 지칭되게 되었다(White, 2003: 69-74).

1949년 병합직후 중국내 소수민족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겠다고 한 마오쩌둥의 선언과는 무관하게 지난 40년간 중국 한족 정부는 일관되게 위구르인들의 종교, 문화, 그리고 전통을 없애고 중국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서방의 제국주의에 비해 중국제국주의가 훨씬 더 폭압적인 것은 한족 이주정책과 민족말살정책, 그리고 국가 테러리즘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서방 제국주의의 경우 자본과 기술은 자국으로부터 투자하지만 노동은 식민지 현지인들을 활용한다. 때문에 적어도 현지인들은 경제적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양질의 노동력과 관리인력 확보를 위해 식민지 현지인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해당 식민사회의 전반적인 근대화로 이어지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한다. 더욱이 서방 제국주의의 경우 통상적으로 인권과 자유, 평등, 민주주의와 같은 보편적인 가치에 기반 한다. 이 때문에 스스로 그러한 가치에 의해 규제된다. 이는 위선적이기는 하지만 식민지에 대한 탄압과 착취의 정도가 어느 정도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보편적인 가치의 범위 내에서 제한되고 통제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오늘날 중국제국주의의 경우 이러한 서방 제국주의의 특징들이 나타나지 않으며 때문에 이들의 식민 착취는 훨씬 더 폭압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자본과 기술이외에 노동력 역시 한족의 대량 이주를 통해 이들로부터 충당된다. 또한 이주한 한족들이 해당 식민지역의 행정과 교육, 노무관리 등의 주요한 영역들을 장악하게 됨으로 해당 지역의 현지인들을 교육하고 근대화할 필요성이 없게 된다. 때문에 현지인들은 고용되는 혜택도 근대화되는 혜택도 받지 못한 채 철저히 잉여화 된다.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보츠와나를 포함한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유사한 현상이 위구르 지역에서도 관찰된다(Grieboski, 2014; Lufti, 2015).

중국 정부는 전략적으로 한족을 위구르 지역으로 대량 이주시켜 위구르 인들을 소수 잉여원주민들로 전락시켰다. 1940년대에 위구르 지역의 한족 비율은 5퍼센트에 불과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이 비율이 40퍼센트까지 증가하였다. 이들은 지역의 정치와, 행정, 치안, 경제, 비즈니스 등 주요 부분들을 장악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위구르인들은 도시외곽의 시골지역으로 밀려났다(Poh, 2015). 대부분의 위구르 인들은 실직상태에 있으며 교육의 기회로부터도 소외되었다. 정치적 시위 등은 총기사용을 포함한 강경한 법집행으로 진압되며 반 중국 또는 친 위구르 활동은 제대로 된 형사 절차 없이 체포, 구금 또는 사형된다(Frayer, 2015). 2014년 위구르 경제학자 일함 토티는 위구르 문제를 웹사이트를 통해 논의한 이유로 테러리스트 또는 분리주의자로 기소되어 중국법원에 의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The Economist, 2014). 반면 위구르의 상황은 중국정부에 의해 철저히 외부세계와 차단된다. 외국인인 위구르 자치지역에 통행이나 방문이 거의 불가능하며 방문 시에는 철저히 조사되고 감시된다. 인터뷰에 따르면¹⁾ 중국내 한국인들 가운데 위구르 지역을 여행한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이 지역 사정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한다. 만약 한국인과 같은 외국인이 위구르 지역을 여행하거나 방문한다면 이들은 중국정부의 감시대상이 된다. 이

1) 인터뷰를 진행한 대상자는 한국인 유학생으로 중국에 10년 가까이 머물렀다.

리한 배경 때문에 위구르에 관한 대부분의 뉴스는 오직 중국의 관영언론을 통해서만 외부세계로 전달된다. 따라서 사실이 상당부분 중국 정부의 이해관계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왜곡되어 외부세계로 전달된다. 중국이 위구르 지역에 이처럼 공을 들이는 이유는 이 지역의 석유와 가스 등 같은 상당한 양의 지하자원을 포함하며 중국 영토의 6분의 1에 달하는 전략적 요지일 뿐만 아니라 위구르 분리 독립이 티베트와 내몽고, 그리고 간도의 조선족 자치주와 같은 중국내 다른 이민족 지역으로 연쇄 도미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Gulevich, 2013).

테러리즘, 이슬람 극단주의, 대테러 정책 등과 같은 표현들은 위구르 민족탄압을 위한 중국 국가테러리즘의 효과적인 선전도구가 되고 있다(Rauhala, 2014). 중국은 9.11테러 이후 미국이 주도한 글로벌 대테러 전쟁에 대한 참여를 핑계로 지속해 오던 위구르인과 위구르 민족주의에 대한 탄압을 강화했다. 위구르 민족주의에 대한 탄압을 이슬람 테러리즘에 대한 대테러 정책으로 포장하고 위구르 민족주의자들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로 몰아붙임으로서 자신들의 국가테러리즘을 정당화하고 더불어 국제사회로부터 정당성과 지지를 이끌어냈다(Frayer, 2015). 이러한 중국의 시도는 러시아가 대테러 전쟁을 빌미로 체첸 분리주의자들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세력으로 몰아붙이며 대테러 전쟁을 명분으로 체첸 분리주의운동을 진압한 것과 비교될 수 있다.

중국의 대테러 정책은 위구르와 티베트 등과 같은 민족주의적 분리독립세력을 차단하고 제거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위협 수위가 높은 위구르의 경우 이웃한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등지로부터의 국제적 연계를 차단하는데 주력한다.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이들 이웃 지역들은 위구르인들과 동질적이며 강한 정서적 유대와 동질적 정체성을 공유한다. 또한 이들 지역들은 지리적으로 위구르 지역과 연결되어 있다. 때문에 중국정부는 이들 이웃 지역들과의 연계를 차단하고 위구르인들을 국제적으로 고립시켜 위구르 민족주의를 대테러 전쟁을 명분으로 진압하는데 주력한다. 이른바 상하이 협력기구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는 위구르 민족주의를 진압하기 위한 중국정부의 국제공조 노력의 일환이다. 상하이 협력기구에는 러시아 이외에 중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이 가입되어 있다. 체첸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분리주의 움직임들에 대한 예방책이라는 독자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러시아를 제외하면 나머지 스탠국가들은 모두 독재정권들이다. 때문에 자국 내 위구르와 연계된 정치세력들은 모두 자신들의 정권

안정에 위해요소가 된다. 이들 정치세력들은 위구르인들과 함께 역내 스탄국가들을 포괄하는 범투르크 정치체제를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의 카리모프 정권과 같은 독재정권들은 위구르 탄압과 자국 내 연계 범투르크 정치세력 소탕에 대한 공통의 이해관계를 중국정부와 공유한다. 더불어 중국정부의 경제적 지원과 투자는 이들 스탄국가의 독재정권들에게 달콤한 유혹이다.

파키스탄의 경우에도 중국정부는 경제적 지원과 투자를 무기로 파키스탄 영토내의 위구르 독립 세력의 소탕에 대한 협력을 이끌어 내고 있다. 파키스탄은 중국과 오랜 협력관계에 있다. 인도와의 경쟁관계 또는 적대관계로 인해 중국의 지지가 전통적으로 필요하였으며 최근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역시 긴밀하다. 최근 들어서는 타일랜드 정부에 대한 외교적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위구르 민족주의 세력을 국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타일랜드에는 상당한 수의 위구르 난민들이 존재하며 또한 터키로 이주하기 위한 중간 경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Babayan, 2011; Rehman, 2014; Tukmadiyeva, 2013).

한편 위구르 문제를 제외한 그 외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에 대한 문제에 관해서는 중국은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대테러 정책 자체보다는 미국과 서방 동맹세력에 대한 견제에 초점을 맞춘다. 이번 시리아 문제 역시 그러한 중국의 태도를 알 수 있게 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고 나섰다. 아사드 정권과의 전통적 동맹유지라는 분명한 아젠다가 있는 러시아와는 달리 중국은 역내 미국의 헤게모니에 대한 휘방이라는 목적으로 테러리즘의 문제를 활용한다. 미국이 수행하는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한 대테러 전쟁의 실패는 중동에 대한 헤게모니 상실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는 다시 원유가격과 생산량 통제에 대한 실패로 이어질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원유와 연동된 기축통화로서의 미국 달러화의 지위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군사력과 함께 미국 패권질서를 떠받치는 또 하나의 핵심축인 통화 공급 통제력의 상실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 미국의 패권질서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중국은 이런 맥락에서 테러리즘과 대테러 정책을 미국에 대한 견제와 대항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IV. 위구르 테러리즘

위구르 테러리즘은 중국의 제국주의 지배와 폭압적인 국가테러리즘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했다. ETIM은 이러한 위구르 테러리즘의 중심에 있다. ETIM은 투르크 이슬람 당(Turkistan Islamic party), 동 투르크 이슬람 당(Eastern Turkistan Islamic Party), 그리고 동 투르크 이슬람 신당과 동 투르크 민족 혁명연합(East Turkistan Islamic Party of Allah and East Turkistan National Revolution Association) 등과 연계되어 있다. ETIM은 위구르 민족독립운동 세력 가운데 가장 전투적인 조직이며 독립된 동 투르크(Eastern Turkistan) 국가 수립을 목표로 한다. 이 동 투르크 국가는 현재의 신장-위구르 지역에서의 독립 국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신장-위구르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거대한 칼리프 국가를 의미하기도 한다. 때문에 위구르 민족운동은 궁극적으로 범 투르크주의(Pan-Turkism)와 맞닿아 있다(Rehman, 2014).

ETIM은 1993년에 신장-위구르 카쉬가르 지역출신인 위구르족 하산 마숨에 의해 결성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위구르인들의 무장 세력화는 1979년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정부는 당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옛 소련을 무너뜨리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대소련 아프가니스탄 지하드에 위구르인들이 참여하도록 지원했다. 아프가니스탄 무자히딘 전쟁에서의 경험은 위구르 무장 세력들이 알카에다와 탈레반 등과 같은 다른 이슬람 무장 세력과 종교적, 문화적, 정서적, 전략적 연대를 결성하도록 만들었으며 동시에 훈련과 전쟁경험을 통해 위구르 무장 세력의 전쟁수행 또는 무력사용 능력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데 기여했다. 이러한 배경은 아프가니스탄이 끝난 직후인 1990년 초에 ETIM이 만들어지고 90년대 이후로 위구르 테러리즘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Eastern Turkestan Islamic Movement, 2011).

대부분의 위구르 테러공격은 1990년대 초, 중반 이전에는 중국 관공서나 경찰 등과 같은 중국정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민간인에 대한 테러공격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테러공격의 규모역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제한되었다. 이들의 목표는 위구르 지역에 중국으로부터 독립한 위구르 독립 국가를 세우는 것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에 이르면서 위구르 이슬람 민족주의는 범 투르크 주의와 연결되

면서 ETIM은 1999년에 TIP(Turkistan Islamic Party: 투르키스탄 이슬람 정당)로 이름을 변경했다. 이는 터키 내 범 터키 민족주의 운동(Pan-Turkism)의 흐름에 영향을 받아 위구르를 넘어 터키, 우즈베키스탄 등 다른 비위구르 계 투르크 민족들을 포함하겠다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Eastern Turkestan Islamic Movement, 2011).

9.11테러는 위구르 테러리즘은 그 양상을 바꾸었으며 이후 2000년대 이후 현재까지 지속된다. 이 시기 위구르 테러리즘은 글로벌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과 연결되면서 보다 종교적으로 극대화되고 방법적으로 과격화되며 기존의 위구르 지역을 넘어 본격적으로 글로벌화하게 된다. 동시에 기존의 중국정부에 대한 절제된 정치적 테러공격에서 다수의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극단주의 테러리즘 양상으로 변화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중국정부의 폭압적 국가테러리즘에 대한 반작용이었다. 또한 이 시기 ETIM은 리더십의 변화를 겪게 된다. 2003년 파키스탄 정부군에 의해 하산 마숨이 살해되고 압둘 하크로 리더가 교체된다. 압둘 하크는 메메티밍 메메티로도 알려져 있다. 리더의 교체 이후 ETIM의 이슬람적 성격은 더욱 강화되는데 압둘 하크는 알카에다 집행부인 알카에다 슈라 회의(Al Qaeda's Shura Council)의 멤버이기도 했다. 압둘 하크가 죽은 뒤에는 압둘 샤쿠르 알 투르키스타니가 리더가 되었다. 알 투르키스타니의 지휘아래 ETIM은 강력한 무장조직으로 거듭나면서 2011년 신장-위구르의 호탄과 카쉬가르에서의 테러공격을 감행했다. 2012년에 알 투르키스타니는 미국의 드론 공격으로 살해되었다(Rehman, 2014).

2000년대를 거치면서 현재까지 이 위구르 민족주의 테러리즘은 알 카에다와 탈레반 등과 같은 글로벌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과 연대가 심화되면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의 성격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모한다. ETIM과 다른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과의 연대는 뿌리가 깊다. 그리고 이러한 연대의 배경에는 투르크라는 민족적 동질성과 수니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문화적 정체성에 기인한다. ETIM은 이미 대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부터 국제적 이슬람 전사들과의 유대를 형성하였다. 2001년 이후 미국이 주도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대테러 전쟁 시 탈레반과 알카에다와 함께 미국과 동맹국,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상대로 싸웠다. 2007년 1월 이후로는 탈레반과 알카에다로부터 은신처와 훈련, 그리고 무기나 자금 등 각종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ETIM 리더 들이 죽은 오사마 빈 라덴과 긴밀한 공조를 형성했다고 알려졌다. IMU(Islamic Movement of Uzbekistan)와도 역시 오랜 협조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IMU 역시 ETIM에 군사적 물질적 지원을 제공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Rehman, 2014).

9.11테러 이후 대테러 전쟁수행을 핑계로 중국 정부가 ETIM 등의 위구르 저항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강경진압과 토벌을 시작하게 되자 많은 위구르 저항세력들이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등으로 망명하게 된다. 이 중 다수는 또한 태국으로 망명하거나 태국을 거쳐 터키로 망명하게 된다. 이 결과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접경지역, 태국, 터키 등에 ETIM 등의 위구르 저항세력이 공고히 뿌리 내리게 된다. 더불어 이들 지역을 무대로 다른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들과의 국제적 연대가 더욱 공고해지게 된다(Rehman,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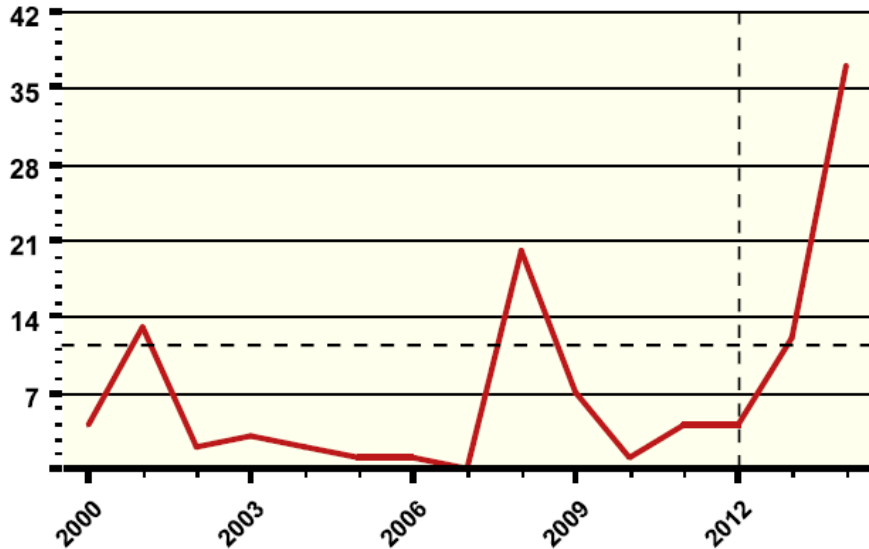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접경지역인 북 와지리스탄(North Waziristan)과 같은 파키스탄의 부족지역들에서 ETIM 등의 위구르 무장 세력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특히 중국정부가 본격적으로 대대적인 소탕을 시작한 2009년 이후로 수백 명의 위구르 무장전사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해왔으며 이 때문에 2009년 이후로 이 지역에서 위구르 테러세력이 활발한 무장투쟁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는 ETIM 이외에 알카에다, IMU, the Islamic Army of Great Britain and Ittehad-e-Jihad Islami 등의 외국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013년 Islami Awazi라는 ETIM의 프로파간다 부서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13명의 위구르 어린이들이 무기사용 훈련을 받고 있었다. 이 지역에는 위구르 무장 세력의 훈련캠프가 여럿 운용되고 있으며 많은 중앙아시아 출신 무장전사들이 거주하고 있다. 외관상 우즈베크인들과 위구르인들의 구분은 어렵지만 이들 모두 이 지역에서 상당한 정도의 거점을 확보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파키스탄 부족지역에서 ETIM은 알 카에다와 IMU 다음으로 세 번째로 가장 강력한 외국계 테러세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ETIM은 파키스탄의 부족지역에서 특히 현지 조직인 파키스탄 탈레반(Tehrik-e-Taliban Pakistan), 알카에다, IMU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테러활동, 훈련, 자금, 무기, 은신처 등의 여러 분야에서 공조를 공고히 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자국 내 위구르 무장 세력의 존재와 활동을 쉬쉬하고 싶어 한다. 이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인데 파키스탄은 중국의 경제적 투자와 협력, 그리고 인디아에 대항한 중국의 동맹지원 등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이다(Rehman, 2014).

태국과 터키, 시리아 등 역시 이주한 위구르 저항세력의 해외 거점이 되고 있다. 2015년 8월에 있었던 방콕테러는 중국의 압력을 받은 태국정부가 터키로 망명하기

위해 불법 입국한 위구르인 109명을 중국으로 강제 송환한데 대한 보복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도 되었다. 같은 해 7월에 터키에서 터키 시위대에 중국인으로 오해받아 한국인 관광객들이 공격받은 사건 역시 중국의 위구르인 탄압에 대한 범 투르크 민족주의자들의 보복과 관련이 있다. 최근 들어서는 위구르인들이 IS에 가담하여 시리아와 이라크의 내전에 참여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이들 가담 인원은 200-300명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테러리즘 전문가들은 기껏해야 20-30명에 불과한 수준이며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부풀렸다고 평가한다. 공식적인 해외여행이 거의 불가능한 이들 위구르인들은 위조 터키여권을 사용하여 중국을 떠나 IS에 가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터키와 같은 해외로 망명이나 이주를 원하는 난민들이다. 때문에 아직까지는 IS와 ETIM과 같은 위구르 테러세력과의 긴밀한 연대에 대한 증거는 없다(정은지, 2015; Frayer, 2015).

이처럼 해외로 망명하여 거점을 확보한 위구르 무장독립 세력들은 알 카에다와 탈레반, 파키스탄 탈레반, 그리고 IMU 등으로부터 자금과 무기, 훈련 등의 지원을 받으며 글로벌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네트워크와 결합되었다. 이 과정에서 점차 이슬람 극단주의 성향이 짙어지게 되고 민간인에 대한 자살폭탄테러와 무장공격과 같은 알카에다 식의 테러전술을 채택하게 된다. 2008년경부터 위구르 테러가 중국 민간인들을 공격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게 된다. 2008년 상하이와 쿤닝에서의 버스 폭탄테러, 2013년 베이징 천안문 광장 차량폭탄테러, 2014년 우룸키와 쿤밍에서 일어났던 철도역 폭탄테러 등이 그와 같은 사례들이다. 지난 달 방콕 테러사건은 이러한 알카에다 식 테러전술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Rehman, 2014).

아래의 <그림 1>은 START센터의 위구르 지역 테러사건의 발생빈도 수를 2000년에서 2014년까지 보여주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이 두 가지가 나타난다. 우선 2001년 이후 중국 정부가 대테러 전쟁을 명분으로 위구르 무장 세력에 대한 공세를 대대적으로 강화하게 된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대대적인 탄압의 결과는 2002년에서 2007년까지 테러발생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이러한 경향이 지속된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대대적인 탄압에 대한 반작용으로 위구르 테러리즘은 해외로 망명하면서 알카에다, 탈레반, IMU 등의 해외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세력들과 연대하면서 이들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 결과 이들은 보다 강경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세력으로 변모하며 테러공격 역시 보다 과격화, 폭력화, 극단화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급격한 테러



(2000-2014년) (출처: Global Terrorism Database).

〈그림 1〉 위구르 테러공격사건 발생빈도의 추이

사건 발생 빈도의 증가로 나타난다. 실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시기에 민간인에 대한 테러 공격을 포함하여 대규모 폭탄테러 공격이 이 시기에 발생했다. 이후 다시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테러 공격 발생이 잠시 주춤한다. 이 시기에는 중국 정부의 대대적 공세와 ETIM의 리더십 교체가 일어난 시기와 맞물린다. 하지만 2012년 이후 위구르 테러는 그 발생 빈도가 급격히 그리고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역시 알카에다와 같은 해외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본격적인 지원과 연대의 결과인 것처럼 보인다.

알카에다 등의 글로벌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세력이 위구르 문제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고 중국을 미국과 같은 이슬람의 핵심적인 적대세력으로 간주하기 시작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최근에 무프티 아부 자르 알 부미는 “중국을 혼란시키자(let's disturb china)”는 비디오 메시지에서 파키스탄 지역에 있는 중국의 이해관계 대상들을 모든 탈레반 그룹들이 공격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미국의 철수와 함께 우리의 다음 목표는 중국이라고 분명히 했으며 2014년 5월에 공개된 또 다른 탈레반 비디오에서 모든 탈레반 그룹은 중국 대사관과 회사를 공격하고 중국인들을 납치하거나 살해해야 한

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핵심 알카에다 리더인 아부 야하 알 리비는 위구르 형제들을 위해 해외의 중국인들에 대한 보복 공격을 호소했다. 이러한 글로벌 이슬람 테러 세력들의 위구르 문제에 대한 관심과 중국에 대한 적의는 ETIM과 다른 해외 이슬람 세력들과의 연대를 강화시켰다. 이러한 해외 세력들의 협력과 지원 때문에 최근 들어 위구르 테러리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위의 그림에서 2012년 이후의 테러발생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더불어 위구르 테러리즘이 질적으로도 변모하고 있다. 더욱 폭력적이고 전문적인 테러공격들로 진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Rehman, 2014).

V. 맺음말

위구르 테러리즘은 민족문제와 테러리즘, 제국주의와 국가테러리즘 등이 만들어 내는 복합적 결과물이다. 이는 오늘날 나타나는 대부분의 테러리즘을 포함한 안보문제의 전형적인 다차원 안보적인 특징이다. 위구르 문제는 그 하나의 일면이다. 위구르 문제를 바라보면 위구르 민족독립과 중국의 제국주의가 서로 충돌하는 작용-반작용의 잇따른 변증법적 충돌과 통합을 통해 변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중국의 제국주의적인 세력 확장과 점령은 위구르 민족의 민족독립에 대한 열망과 민족국가 수립운동을 초래한다. 그리고 이러한 민족독립의 움직임은 다시 중국의 폭압적 국가테러리즘이라는 반작용을 이끌어내고 독립에 대한 열망을 좌절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제국주의의 폭압적 진압은 위구르 민족주의자들을 해외로 망명시키거나 해외로부터의 도움을 구하도록 만들었으므로 위구르문제가 국제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위구르 문제의 국제화는 하나는 인종적 또는 종족적 연대인 범투르크 주의로 또 다른 하나는 이슬람 종교를 통한 연대인 이슬람 근본주의로 나타난다. 전자는 위구르, 터키의 연대로 후자는 위구르, 알카에다, 탈레반, IMU로 구체화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위구르 민족주의 운동은 중국의 국가테러리즘에 대한 반작용으로 민족주의 테러리즘을 거쳐 중국에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으로 변모된다.

앞으로 위구르 테러리즘은 중동, 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등과 함께 또 다른 주요한 테러전쟁의 한 무대가 될지 모른다. 이는 알카에다와 IS와 같은 글로벌 테러 네트워크의 중심축들이 경쟁적으로 위구르와 중국의 문제에 관심을 갖기 때문

이다. 또한 알카에다, 탈레반, 그리고 IMU 등의 ETIM과의 연대는 위구르 테러의 전략적, 전술적 테러역량을 단기간에 매우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킬지 모른다. 여전히 억눌려 있는 위구르 민족문제의 폭발성은 위구르 테러리즘이 중국정부와 사회를 곤혹스럽게 할 것이다. 중국의 이에 대한 대응방식은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의도치 않게 더욱 악화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만들어 낼지 모른다.

위구르 테러리즘의 문제는 우리나라와 동북아시아 안보에 미칠지 모르는 하나의 주요한 투입변수이다. 위구르 테러리즘문제가 견잡을 수 없이 악화된다면 중국 사회는 상당한 테러로부터 야기되는 안보의 위협에 직면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모른다. 중국이 테러리즘과의 힘겨운 싸움에 진입한다면 그들의 동아시아-태평양으로의 제국적 팽창은 악화될지 모른다. 이는 그들이 더 이상 이 지역에 세력투사를 집중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안보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마키아벨리의 오래된 가르침처럼 적의 적은 나의 친구이기 때문이다. 이웃한 강대국의 힘이 분산되는 것은 늘 좋은 일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위구르 테러리즘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이슬람 테러리즘 일반은 우리의 안보에 손실이지만 위구르 테러리즘은 우리의 안보이익에 이득이 되는 흥미로운 상황이 전개될지도 모른다. 이 경우 우리는 우선이거나 이중 잣대일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테러리즘은 상당히 복잡하고 탈근대적이며, 혼란스런 안보의 문제들을 제시한다. 때문에 테러리즘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사회과학적으로 또는 정부분석적인 시각에서 다양한 방식의 계량적 질적 분석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도 점차 이루한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강욱·전용태, 2012; 김은영·박선영, 2013; 윤민우, 2013; 이완희·윤민우·박준석, 2013). 이 논문은 이러한 노력들의 한 사례로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욱·전용태. (2012). 자살폭탄 테러자의 동기와 효율적 대처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33, 7-25.
- 김은영·박선영. (2013). 국제테러리즘데이터베이스 구축: 미국의 START 센터의 모범사례의 소개. *한국경호경비학회지*, 35, 7-36.
- 서영교. (2007). 고구려, 전쟁의 나라: 7백 년의 동업과 경쟁. 경기, 파주: 글항아리.
- 윤민우. (2013). 계량분석을 통한 폭탄테러사건의 패턴분석. *한국경호경비학회지*, 36, 317-347.
- 윤민우·김은영. (2012). 다차원 안보위협과 융합안보: 탈근대 사회에서의 안보와 치안의 융합현상에 대한 이해. *한국경호경비학회지*, 31, 157-185.
- 이완희·윤민우·박준석. (2013). 인터넷 시대의 정보활동: OSINT의 이해와 적용사례분석. *한국경호경비학회지*, 34, 259-278.
- 정은지. (2015년 9월 10일). 방콕테러, 2013년 텐안먼 테러 자행한 ETIM 소행. News 1.

2. 국외문헌

- Babayan, D. (2011). Pan-Turkism and Geopolitics of China. *21st CENTURY*, no. 1(9): 13-34.
- Eastern Turkestan Islamic Movement. (2011). *Globalsecurity.org*.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world/para/etip.htm>
- Fraye, K. (2015, Feb. 9). Is China making its own terrorism problem worse?. *Foreign Policy*. <http://foreignpolicy.com/2015/02/09/is-china-making-its-own-terrorism-problem-worse-uyghurs-islamic-state/>
- Girit, S. (2015, July. 9). China-Turkey relationship strined over Uighurs, *BBC News*.
- Grieboski, J. (2014, Sep. 24). Tension, Repression, and Discrimination: China's Uyghurs under threat. *Georgetow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http://journal.georgetown.edu/tension-repression-and-discrimination-chinas-uyghurs-under-threat/>
- Gulevich, V. (2013, Oct. 30). Washington Promotes Islamism and Political Destabilization in Xinjiang Uyghur, China's Oil and Gas Rich Region. *Global Research*. <http://www.globalresearch.ca/us-promotes-islamism-and-political-destabilization-in-xinjiang-chinas-oil-and-gas-rich-province/5329016>

- Lufi, A. (2015). Uyghur separatism and China's crisis of credibility in the War on Terror. *China Brief*, vol. 4, Iss. 3.
- Poh, A. (2015, July. 28). Uyghur Terrorism: A Misnomer?, *The Diplomat*.
- Rauhala, E. (2014, Aug. 25). China's Silent war on Terror, *Time*.
- Rehman, Z. U. (2014, Aug.). ETIM's presence in Pakistan and China's growing pressure. *Norwegian Peacebuilding Resource Centre Report*.
- The Economist*. (2014, Sep. 23). Uighur scholar Ilham Tohti sentenced a moderate silenced. <http://www.economist.com/blogs/analects/2014/09/uighur-scholar-ilham-tohti-sentenced>
- Tukmadiyeva, M. (2013). Xinjiang in China's Foreign Policy toward Central Asia. *The Quarterly Journal*: 87-110.
- White, J. R. (2003). *Terrorism: An Introduction*. (3rd ed.). Belmont, CA: Wadsworth.

【Abstract】

Thr problem of Uyghur nationalism, Uyghur terrorism, and the state terrorism of the Chinese state

Yun, Min-Woo^{*}

The Chinese urge for the imperial power is a major threat to the today's peaceful international order. Such arrogant and delusional goal could be the very critical obstacle against the Korean security and national interests due to the geographical proximity. Today, the interesting dynamic of Uyghur nationalism, Uyghur terrorism, and the oppressive Chinese state terrorism could provide an meaningful prediction for the situation that the Korean nation may face in the future. In this regard, the present paper describes the interaction between Uyghur nationalism, Uyghur terrorism, and the Chinese state terrorism. The today's terrorism is a multi-dimensional security matter in that national independence, political and economic discrimination, non-state terrorism, and the hegemony competition among superpowers are intricately interrelated. Uyghur terrorism and related matter tend to show the nature of today's terrorism as a multi-dimensional security matter.

Key words : terrorism, Uyghur, Uyghur nationalism, Chinese imperialism, state terrorism, Islamic extremism

^{*} Ph.D. in Criminal Justice,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Police Science & Security Studies, Gachon University